

남원 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爰인’ 이름값 하네

9월말 현재 744억 여원 판매...올해 매출 목표 850억 무난 할듯 청정남원 자연환경·철저한 품질관리·지속적인 홍보 효과 ‘주효’

남원시 농산물공동브랜드인 ‘춘향爰인’이 올해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에게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춘향爰인은 9월 말 현재 744억 6500만원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 매출 목표 85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춘향爰인이 이저령 성공하고 있는 것은 청정남원의 자연환경과 철저한 품질관리, 지속적인 홍보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천부지 옥야백리 天府之地 沃野百里·하늘이 고을을 정해준 땅, 비옥한 들만이 넓게 펼쳐져 있다’로 불리는 남원은 운봉, 인월, 아영, 산내 등부근 고랭지에서 수지, 송동, 주생, 금지 팥야지대에 이르는 비옥한 토지에서는 1년 내내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이점을 갖고 있다.

춘향爰인은 딸기, 파프리카, 감자, 상추, 오이, 멜론, 포도, 배 등 8개 육성품목에서 연차적으로 토마토, 오이, 배, 수박, 애호박, 양파 등 전라품목 6개를 더해 모두 14개로 늘어났다.

춘향爰인은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파프리카와 멜론, 포도, 배 등 951t을 일본, 대만, 캐나다 등에 수출해 3578만달러의 외화를 획득하는 등

매년 수출선을 확대하고 있다.

또 1인 소비자 시대에 맞춰 농산물 소포장화와 국내판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해외수출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



남원의 한공장에서 남원시 농산물공동브랜드인 ‘춘향爰인’ 이름으로 판매되는 김부각 만들기 한창이다. <남원시 제공>

다. 남원시 관계자는 “춘향爰인이 소비자들이 믿고사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만큼 판로 확보와 유통 지원을 지속해 농민들이 농사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청정 춘향골 남원에 서 사람을 담아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이라

는 뜻을 갖고 탄생한 ‘춘향爰인’은 현재 607억원의 매출을 올려 도내 9개 조합공동사업 법인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춘향농협, 남원농협, 남원원협, 지리산농협, 운봉농협이 참가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영암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내일 개막

도올 김용옥 특별강연·산사음악회 등 열려

영암군은 신라 4대 고승이자 풍수지리의 대가인 도선국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월출산 도갑사에서 오는 6일 연다고 4일 밝혔다.

올 해로 13회째를 맞는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는 이날 오후 3시 도올 김용옥 선생의 ‘도선국사의 새나라 통일전략’이란 주제의 특별강연과 도선국사 다례제, 기념법요식, 저력공양, 산사음악회 등이 진행된다.

오후 7시부터 도갑사 특설무대에서 열릴 산사음악회는 예년과 다르게 사물놀이의 명인 김덕수가 특별 협연하는 국악과 클래식의 크로스오버 공연이 펼쳐진다.

또 도갑사를 배경으로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의 환상적인 미디어파사드 공연 ‘월인천강’과 가요계의 디바 알리

의 가을밤 콘서트 등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는 지역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가는 영암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가을산사에서 펼쳐질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을 즐기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갑사는 신라 말 도선국사가 머물렀다고 하는 연기 설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지난 1977년 화재로 대웅보전이 소실된 것을 계기로 전반적인 발굴·보수 작업이 진행돼 현재에 이르렀다. 도갑사에는 국보 제50호로 지정된 영암 도갑사 해탈문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재가 소장돼 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곡성군, 상수도 현대화 사업 선정 국비 200억 확보

곡성군은 환경부 주관 ‘2019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돼 총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곡성읍·석곡면·옥곡면 3개 지역 노후 상수관로 80km 가 시설 개선사업 대상이다.

상수도 관리·운영체계 시스템을 현대

화해 유수율을 85%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곡성군은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노후 상수도 정비로 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편익증대와 보건위생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전북도, 축산농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 9곳 적발

전북도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축산농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특별점검해 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상수원 상류와 민원이 발생하는 중심으로 실시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퇴비저장시설 관리 소홀, 저장시설 외 가축분뇨 야적,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등이다.

지역별로는 진안군이 3곳으로 가장 많고 남원시와 장수군이 각각 2건, 무주군

과 임실군이 1곳씩이다.

적발된 9곳은 위반유형에 따라 고발(2건) 및 과태료 부과(7건 920만원)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점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상대로 자율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지도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구제역·AI 차단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실시

순창군은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원천차단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5개월 간 특별방역기간을 정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범위(500m→3km)를 넓히고 살처분 보상금(감액, AI 보상금 페널티 적용기간(2년→5년)을 늘리는 등 방역책임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순창군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운영,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에서 사육하는 소 1만6686마리와 염소 1만7462마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구제역 일제접종을 시행한다.

또 가금류 농장의 방역 실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쓰레기로 고통받는 해양동물 지켜주세요”

전주동물원, ‘세계동물의 날’ 맞아 환경보전 행사 등 다채

전주동물원은 세계 동물의 날(10월 4일)을 기념해 오는 6~7일 동물원 내 기린사육장에서 동물행동 풍부화 행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동물행동 풍부화는 사육동물에게 환경과 먹이 등을 통한 자극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동물의 행동을 끌어내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카자(KAZA·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와 함께 추진한다.

행사에서는 관람객에게 쓰레기로 고통받는 해양동물들의 심각성을 알림으로써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환경 보전 실천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진행된다.

캠페인과 관련해 페이스북(www.facebook.com/1985KAZA) 이벤트

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멸종위기동물 디자인 기념품도 증정한다.

조동주 전주동물원장은 “세계 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금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분들께서 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는 해양동물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환경보전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동물의 날은 동물 애호·보호를 위한 세계 기념일로, 193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생태학자대회에서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에 빠진 동물을 보호하자는 의미가 제정됐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 팔복동 산단 주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8억원 들여 태양광 183곳 등 발전시설 설치

전력소비가 많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산업단지 주변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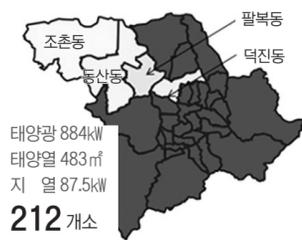
전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총 28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팔복동 산업단지 인근 조촌동, 동산동, 덕진동 일대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발전시설은 팔복동 산업단지 공장 5곳과 주변 마을의 주택·공공시설 등 200여 곳에 태양광 183곳(884kW)과 태양열 24곳(383㎡), 지열 5곳(88kW)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연간 1129MW의 에너지가 생산되면 374t(석유화석, 1t은 원유 1t의 열량)의 화석에너지 대체효과와 연간 509t의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전력소비가 많은 산단 주변에 에너지 자립마을로 탈바꿈되면 에너지 분권

■ 2019년도 전주시 사업대상지



과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펼쳐온 ‘에너지 디자인 3040’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의 ‘에너지 디자인 3040’은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과 전력 자립률을 각각 30%와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6834-7400